

한 번 시공으로 만년을 보장하는

대원 청동주물기와

전화 : (02) 739 - 8745 · 735 - 2344

# 현대불교

55세부터의 월급, 국민은행에서 드리겠습니다.  
국민은행 개인 연금 신탁  
가입문의 : 080 - 023 - 4000

명예회장 노대형 / 발행인 겸 편집인 김광삼 / 논설고문 고은 / 편집국장 최정희 / 인쇄인 김규수 / 등록번호 다-3379 / 110-170 서울시 중로구 건지동 110-33 / 대표전화 737-8881 / 편집국 722-4162 FAX 737-0698 / 광고국 737-0692 / 구독신청 737-0693  
불기 2538년(서기 1994년) 10월 26일 (주) THE HYUNDAE BULKYO

구독료 : 1부 천원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 금주의 법구

어려에게는 자기 국토라는게 없다. 동생들이 사는 곳이 곧 불국토다. (유마경)

### 법회안내

조계사 732-2115

정기법회 화 오후 7시  
토 오후 4시  
방랑법회 첫째 토 오후 4시  
월화법회 마지막 토 오후 4시  
봉은사 511-6070

정기법회 매월 초하루, 매주 일  
3번째 찾아장엄법회 매월 22일  
대덕사 539-2635

금강법회 매월 초하루(음)  
인동법회 매월 보름(음)  
지장재일 매월 18일(음)  
관음법회 매월 24일(음)

진관사 359-8410

신중기도 매월 초하루(음)  
지장기도 매월 18일(음)  
관음기도 매월 24일(음)

김포포교당 539-2635

정기법회 매주 수 오전 11시  
매주 일 오전 11시  
대구 보현사(053)254-6966

신장기도 매월 1일  
일요법회 매주 일  
지장재일 매월 18일  
관음재일 매월 24일

부산 범어사 (051)508-3127

초하루법회 매월 1일(음)  
지장법회 매월 18일(음)  
관음법회 매월 24일(음)

어린이·고등부·청소년 법회  
매주 일  
원주 원각사 (062)223-3168

월요법회 매주 월  
지장기도 16~18일(음)  
관음기도 매월 24일(음)  
기초교리 매주 목 오후 7시  
창년법회 매주 금 오후 7시

제주 관음사 (064)55-6830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 10시  
종학법회 매주 토 오후 3시  
창년법회 매주 토 오후 6시  
연화법회 격주 화 오후 2시  
관음법회 격주 금 오후 2시

※ 이란은 각 사찰의 법회 소식을 알리는 난입니다. 알리기를 원하시는 사찰·포교당은 전화 (722-4162), 팩스(737-0698)로 연락바랍니다.

## “내일의 불교 우리가 맡겠다”

### 청년불자들 21세기준비 발걸음 힘차 대불청 전불련등 세미나·백서 마련

“21C는 우리에게 맡겼다” 청년불자들이 21C를 향해 뛰기 시작했다. 그동안의 정세를 벗고 오랜만에 기지개를 켜 청년단체들이 다가오는 21C를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맞기 위한 갖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것은 물론 21C에 품을 들이 국내외적으로 급격히 변화될 정세, 내년 지자체 선거등 연이어 있을 선거, 그리고 중단 개혁이라는 고계 내외적 분위기가 민감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 뿐 아니라 팔방만 쏘고 가만히 있어만 있으면 불교는 결코 21C를 리드해 갈 수 없다는 절박한 인식이 청년불자들의 발걸음을 빠르게 하고 있다. 아울러 불교를 21C 희망이자 걸림으로 만들고 말겠다는 청년불자들의 아슬한 의욕도 발걸음에 가속을 붙이고 있다.

최근 21C를 준비하는 기획팀을 가동시키며 정기 마스터 플랜을 준비하고 있는 단체는 대한불교청년회(회장 배영진, 이하 '대청연')이다. 일단 기초 단계에 돌입했다는 대청연 기획팀은 자신들의 현황을 따듯한 시선내에 지표화 해 그것을 기반으로 년도 및 기별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2단계로는 여론을 포괄적으로 수렴하고 행사장에서는 '신

도법'제정과 내년 지자체 선거를 대비 불교계 준비를 갖추겠다는 계획이다. 이미 지난해 12월 '21C를 지향하는 전국청년회 발전 전략'이라는 백서를 발간한 바 있을 정도로 21C 준비에 역량을 둔 전국청년회(회장 최정희)는 백서에서 전국총동 회장대중사의 탄생 100주년이 되는 2001년까지 대청연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하에 장기발전안과 그 시행에 따른 세부지침을 자세히 밝히고 있다.

또한 전국총 동향학회는 2001년까지 8년간 매년 10편 정도의 회당과 관련 논문을 발간해 종단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전략도 내놓고 있다.

미래시대의 주역을 자부하는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장어, 이하 '대불련') 역시 교회사업 활성화를 21년대를 맞아 장기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오는 97년까지를 1차 5개년, 2002년까지를 2차 5개년으로 2007년까지를 3차 5개년으로 잡아 1차를 기반다지는 기간으로, 2차를 약진의 시기, 그리고 3차년도까지 대불련을 우리나라 젊은불자들의 명실상부한 최대 전국적 조직으로 만들겠다는 혁신안을 밝히고 있다.

장기혁신안중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이 교화단 사업과 대불련 회관 건립, 동문의 활성화이다. 18개 단계를 포함한 전국불교운동연합(상임의장 지선, 이하 '전불련') 역시 21C에 품을 주체적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견해하에 구체적인 사업으로 △남부상호군속운동 △단기스기 생활화 △반인민족 행위자

절차 색출 처벌 운동 등 민족의 정기를 수호해 나가야 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세미나 개최등을 준비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청년불자들의 움직임에 우려의 눈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들 진부가 전국 조직을 지향하는 단체들이지만 과연 이러한 움직임이 상층부 및 영의 머리 뒷부분에서만 오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회원 전체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는 인식의 공유를 위한 교육과 구체적이고 진지한 토론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무슨 일을 할 때 마다 절망감도 작용하는 재원 확보를 위한 효율적 방안 수립도 중요 관건이다. 재원미약과 더불어 인력 수급도 심각한 문제. 한층 다양해지고 진화해온 21C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건론 인재양성이 공명물로 끝나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청년불자들을 물리적으로 취급하는 종단의 사고방식이 바뀌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급선부로 떠오르고 있다. 대불련 하영대 사무총장은 "21C를 우리 불자들의 사대로 맞겠다는 사부대중의 부활한 확신과 준비에 대한 과감한 투자야말로 21C를 진정 불교의 시대로 만드는 관건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경숙 기자)

## 재가연합 지방본부 설립 11월말 이전에 수련관 개관

한국재가불자연합(상임의장 안영일)은 전국 조직 활성화, 홍보사업 등을 위한 사업들을 확정했다. 재가연합은 조직확충으로 11월말에 대구 진주 광주지역에 각 본부설립을 하기로 하는 한편 12월말에 고령단 및 지도

위원단을 선정, 추대기로 했다. 한편 홍보를 위해 재가연합은 11월 1일자로 회보 '재가불자신문'을 창간하며 11월말에는 경기도 이천에 2백명 수용 규모의 3층 수련관을 개관할 예정이다.

(이경숙 기자)

## 새 중앙회장 선출 대불청, 이달 30일

대한불교 청년회 대의원회의(회장 양승환)는 오는 30일 오후 1시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31차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제18대 중앙회장 및 감사 선출한다.

이번 선거에는 중앙회장후보로 진인철 전 조계사 청년회장과 이상반 전 대구지구회장이 출마 했으며 합동경선 발표를 갖는 등 막바지 유세를 펼치고 있다.

## 목어

조계종에 선거 바람이 일고 있다.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얼마를 슬까?”

개회회의의 바분을 넘겨받은 조계종 총무원장을 겸하는 말들이 심심찮게 오가고 있다.

무심히 말하고 무감각하게 들어 넘기는 말이지만 생각해보면 얼마나 어이없고 속수무연한 일인가.

성직자와 선거, 수행자와 선

거는 그다지 어울리는 말이 아니다. 그런데도 종단의 수장을 뽑을 때면 으레 종단 주변에서는 물론 언론에서까지 선거열기를 부추긴다.

## 바람없는 절집 선거

수행집단과 세속이 달라야 하는 거부의 여지가 없다. 때문에 수행종단의 대외를 뽑는 데는 민주적 선거도 좋지만, 서로 양보하는 가운데 덕담있는 성직자를 모실 수 있으면

더욱 좋아 보일 것이다. 그러나 선거가 제도화 된 이상 소리가없이 조용한 선거를 치르는 것이 종교집단의 선거다운 것으로 본다. 세속에서 조

차 새로운 선거풍토를 다지고 있는데, 허물어 개혁의 뜻을 이어야하는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가 요란스럽게 거일 된다 면 이는 불사나온 공경일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명리나 권경이 자신에게 돌아올 것을 탐하지 말라”고 거듭 거듭 당부 하셨다. 또 “스님들의 비유는 끝비술만도 못하다”는 속담도 있다.

당연히 그러하리라 믿지만 후불들은 이타심으로 나서야 하고, 3백20명의 선거인단 역시 이타심으로 대표를 뽑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주변에서도 조계종의 선거를 마치 세속적 선거 전으로 바라보지 않아야 했다. 승가는 부처님 법에 따라 수행하는 집합체이기 때문이다.

## 금주의 현대불교

- 장강 형사 침착자 명단 ..... 2·3면
- 선문학의 선 · 여초 김용현 ..... 5면
- 창간기념 령카스터·정병조교수 대담 ..... 7면
- 지상법석 조계종 총장 철하스님 ..... 8·9면
- 고은 불교대학소설 '수미산' ..... 10면
- 신세대 주부불자 '바브다 바버' ..... 11면
- 해의동선 · 부다가야 대각사 운영문제 ..... 14면
- 방생이 달라지고 있다 ..... 45면



죽림정관, 오대산 정자사(정자사), 국성 선문사(정자사), 시흥 정자교회, 서울 정자교회, 부산 정자교회

# 전통기와의 멋과 품격을 풍산 한식숩기과가 완벽하게 재현했습니다!

풍산 한식숩기과는 전통을 소중히 하는 사찰, 고건축물 등 한식가옥과 주택의 미를 추구하는 기념건축물, 일반 가옥 등에 잘 어울리는 지붕재입니다.

■ 내식성이 뛰어나 수명이 반영구적입니다.  
풍산 한식 숩기과는 시공후 짧은 시간내에 표면에 자연한 조끼의 산화막을 형성, 부식을 막아주므로 수명이 반영구적입니다. 또한 내후성과 방수성이 뛰어나 어떠한 기후 조건에 변화에도 안전할 상태를 유지, 눈, 비, 바람으로부터 건물을 보호해 줍니다.

■ 고색상안한 색상과 전통미를 재현했습니다.  
풍산 한식 숩기과는 동년 특유의 색상변화에 따라 시간이 흐름수록 중후한 색상을 이루며 건물에 고색상안한 멋을 더해줍니다. 여기에 동량의 우수한 가공성을 이룸, 우리기와의 전통적 원형과 적성을 완벽하게 재현시켰으며 고유의 멋을 그대로 살려주고 있습니다.

■ 시공이 간편하고 경량입니다.  
풍산 한식 숩기과는 주요 기와부품은 기계 가공에 제품이 규격화되어 있으며 원천로직으로 시공이 간편합니다. 또한 기와의 중량이 총기와의 10분의 1 정도로 가벼워 운반이 쉽고 건물에 무리를 주지 않습니다.

뛰어난 내식성과 내후성, 중후한 색상, 완벽하게 재현된 전통미 그리고 시공이 간편한 풍산 한식 숩기과로 현대건축물에 전통가옥의 멋과 품격을 살려보십시오.

株式会社 豊山  
전화 : 273-3021/9 FAX : 273-3835